

한화, 복지시설에 태양광 지원

한화그룹(회장 김승연)이 전국 36개 복지시설에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무료로 지원한다.



한화그룹은 전국 공공복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사회복지관 및 아동·장애인·노인복지시설 등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했다고 10월23일 발표했다.

전체 지원설비의 발전용량은 204kwh로 연간 5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한화그룹은 10월23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경로당에서 태양광에너지 설비 준공식을 가졌다.

<화학저널 2012/10/23>